

크리스마스 경관 연출 · 겨울꽃 향연 남원시 대표 누리집 ‘우수’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 · 봉어섬 생태공원에 성탄 트리 · 포토존 등 설치

임실군의 대표적인 사계절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겨울 관광객 맞이 를 위한 준비에 분주해지고 있다.

군은 지난 가을에 국화경관과 구절 초 등 겨울꽃 경관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 옥 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에 겨울 경관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가을 봉어섬을 채웠던 국화와 구절 초 화분을 옮기고 봉어섬 곳곳에 만발 했던 구절초와 화단의 초화류 등을 정 리하고, 겨울꽃을 식재했다.

봉어섬 화단 및 화분에 내한성이 강 한 초화류인 꽃양배추, 청보리, 겨울 팬지 등 겨울 초화류 총 1만8,804본을 식재했다. 또한, 봄에 피어나기 위해 땅속에서 겨울을 보내는 추식구근 식 물인 튤립 1만8,700본, 수선화 7,175본 의 식재를 마쳤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경관 연출에도 한창이다.

매포소와 봉어섬 입구 등에 크리스 마스트리를 설치한 데 이어 옥정호 출 령다리 조형물과 봉어섬 조형물, 방문 자센터 화단에도 순록, 북극곰 인형과



임실군의 대표적인 사계절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겨울 관광객 맞이 를 위한 준비에 분주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리스 등을 설치해 포토존 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은 지난 2022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첫선을 보인 후 지난 5월 누적 관광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은 올 한 해도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 여 큰 인기를 끌었다”며 “방문해 주신 모든 관광객분들께 감사드리고 겨울 철 경관도 조성했으니, 가족과 연인, 이웃, 친구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올 한 해 마지막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 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관광 영상 ·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영상분야 황하진 · 사진분야 허용복 대상

순창군이 지역 곳곳의 매력을 담은 관광 영상 ·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10일 공개했다.

‘내 마음에 순창을 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전국 각지에서 영상 34편, 사진 111점 등 총 145건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가려졌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두 개 작품으 로, 영상은 황하진 씨의 ‘자전거로 떠



나는 순창여행’, 사진분야는 허용복 씨의 ‘한개에 갇힌 체계산 출렁다리’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영상 부문에 서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

상 3편이, 사진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2편, 우수상 5편, 입선 11점이 각각 선정됐다. 모든 수상작은 순창군 공식 유튜브 채널 ‘순창튜브’와 인스타그램 ‘순창스토리’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의 시상금은 영상 분야 대상은 2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지 고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고 사진분야는 대상 100만원과 상패, 최우수상 50만원, 우 수상 20만원, 입선은 5만원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 체험의 날 운영

남원시는 10일, 주생면 제천마을에서 주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원부스(찾아가 는 주민복지서비스, 겨울철 안전대비 및 수칙 안내) △건강부스(혈당 · 혈압 체크, 치매관리상담, 정신건강상담) △

체험부스(네일아트, 손마사지, 소방안 전교육) △떡거리부스(계란빵, 팝콘, 생강차, 커피 등) 4가지 분야에 10여 개 기관 ·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프 로 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최경식 시장은 마을 주민의 소 통간담회를 통해 현안사업에 대해 다 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장애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전기, 가스 등을 점검 및 교체하는 현장봉사를 진행했다.

‘웹어워드 코리아’ 서 지자체분야 우수 선정

남원시가 운영하는 대표 누리집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 평가인 ‘웹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지자체분야 우수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비주얼디자인, UI/UX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 개 부문 18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웹 서비스를 선정하는데 평가단의 온라인 평가 및 전문평가 등을 거쳐 수상작을 결정했다.

남원시 누리집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동행과 포용을 위한 모바일 음성인식 검색, 전자접자서비스, 편안하고 시각 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다크모드 등 각 종 서비스와 기능이 잘 구분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 으며, 지난 1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인증한 정보통신접근성(웹)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홍미선 홍보전산과장은 ‘웹어워드 코리아 2024’를 통해 새롭게 개편된 대표 누리집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웹 사이트 평가와 기술적 검증으로 ‘피어 나다 남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정보 접근성 및 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최고의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체육상 시상식 · 체육인의 밤 행사 열려

순창군 체육회(회장 손춘호)는 지난 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2024년 순창 체육상 시상식과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가 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이성용 순창군의회 부의장, 군 의원, 남삼길 교육장, 체육회 임 · 직 원, 종목별 임원과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024 순창체육동영상 시청, 개회, 내빈소개, 유공자 시상, 우수선수 장학금 시상, 기념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시상은 군수상에 임주섭 체육 회 부회장과 박종영 그라운드골프협회 부회장이 수상했으며, 김진미 체육회 도자자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어 김영남 체육회 이사와 체육진흥사업 소 김진홍 주무관이 의장수상의 영예 를 안았다. 이어 최수단체육에는 순창 군배구협회, 우수단체상 씨름협회, 최



우수선수상 신은식(그라운드골프), 박 재우(육상), 우수선수상에 신현수(검 도), 이승희(합기도), 전태양(역도) 선 수가 수상했다.

특히 패러글라이딩 박신영 회장과 유도금메달리스트 조형수 감독, 순창 북중 최홍석 교사 등이 특별 표창을 수상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순창에서 열린 전북도민체육대회에서 순창이 종합 4 위를 달성해 군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 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순창 체육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예결특위, 추경 · 본예산안 심사 돌입

남원시의회의(의장 김영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식)는 11일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 어간다.

예결특위는 지난 12월 2일부터 10일 까지 진행됐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 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예산을 중 심으로 종합심사를 펼칠 예정이며, 남 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총규 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원이

감소한 9871억 원이다.

강인식 예결위원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밝히며, “지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더 고민해 시 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예산심사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 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사고 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겨울철은 주방에서의 화재 발 생이 높은 계절로, 주방 화재는 불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큰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실천을 강조 했으며, 주요 안전수칙에는 △조 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기 △튀 김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 가스레인지와 후드 내부의 기름 때 주기적 청소 △소화기 및 K 급 소화기 비치 △가스 및 전기 설비 정기 점검 등이며, 특히, 음식점 주방에는 기름 화재에 특화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 진압에 활용할 것을 강조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 예방 ‘K급 소화기’ 구비당부

임실소방서는 음식점 주방 화 재를 예방하기 위해 ‘K급 소화 기’ 구비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방 화재의 주된 원인은 조리기구 주변 가연물의 착화나 가스레인지 주변 벽 및 환기구 기름 찌 거기 착화, 식용유 사용 중 과열 등이다.

주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식용 유 화재는 일반 분말 소화기로 진화할 경우 다시 불길이 살아 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기름 위 에 유류를 형성해 공기 유입을 막고, 냉각 효과가 있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음식점 사업자 를 대상으로 K급 소화기 구비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 다. 또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 해, 화재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한동규 서장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 만으로도 많은 생 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 다. 캠페인을 통해 음식점 사업 자들이 화재 예방 관리와 안전 점점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 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 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 었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 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 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